

제317회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7월22일(월)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의 열람 등에 관한 건(계속)

심사된 안건

- 1.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의 열람 등에 관한 건(계속) 1

(18시24분 개의)

○위원장 **최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의 열람 등에 관한 건(계속)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의 열람 등에 관한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발표된 여야 간 합의사항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검색 활동을 위해 각 교섭단체에서 열람위원 2인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2인 등 총 8인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선정된 위원과 전문가들은 지난 금요일과 주말을 포함하여 오늘까지 4일 동안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존재 여부에 대한 검색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여야 열람위원단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여 검색 활동을 진행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람위원으로 수고해 주고 계시는 새누리당 황진하 위원님과 민주당 우윤근 위원님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진하 위원님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우

윤근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하 위원님!

○**황진하** 위원 2007년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존재 여부를 확인할 것을 위임받은 새누리당의 황진하·조명철 위원, 민주당의 박남춘·전해철 위원 그리고 양당에서 각각 2명씩 지명한 전문가 4명은 지난 19일부터 금일 오전까지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여 회의록 존재를 확인하는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일행은 우선 검색대상 자료의 기간은 정상회담 일자부터 대통령 임기종료일까지 즉 2007년 10월 3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 검색어 포함 19개 그리고 문건 및 자료의 생산자와 생산부서 6개 비서관실을 지정하여 검색된 자료에 대하여 국가기록원 제공 열람목록을 참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능성 있는 목록 제목을 선택하여 전문열람 방식을 통해서 열람했습니다.

그 결과 우선 당시 청와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시킨 외장하드와 이를 인수하여 국가기록원이 탑재해서 관리 중인 팜스(PAMS) 체제에 탑재된 문건 수는 동일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지정기재 재가목록 숫자와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정기재 목록이라는 것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그러한 목록을 뜻합니다.

따라서 문건 수 확인, 용량 확인, 검색어, 검색어는 관련 용어 또는 익명까지 포함된 검색어입

니다. 이것을 이용한 목록검색, 전수조사 등 모든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회의록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황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윤근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근 위원 민주당의 우윤근 위원입니다.

전해철·박남춘 위원과 전문가 2인이 지난 주말 동안 대통령기록관에서 추가 검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료 검색 과정에서 몇 가지 대통령기록관의 인수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봉하에서 반환한 이지원에 대해서 적법·적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두 번 이상 로그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봉하 이지원 로그 과정에서 봉인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봉인 주체인 검찰과 노무현재단 측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로그를 했던 사유 중에서 지정기록의 보호기간 보충은 기록관 측의 관리 부실 등이 이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봉하 이지원에 추가 로그 사실 및 로그 사유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산 전문가 3, 4인의 조력이 필요하지만 전문기술업체의 협조 거부와 시간상 제약 등으로 인해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기록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 기록관리시스템상 지정기간 보호 누락에 대해서 지정기록물의 지정보호기간은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2만 건 이상의 기록물에 그 기간이 누락되어 있었으나 뒤늦게 2010년 3월 이를 보완했다는 것은 기록관 측의 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지원 시스템에서 PAMS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정기록의 보호기간이 누락되면 이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PAMS상 지정기록의 보호기간 누락에 대한 기록관 측의 해명은 설득력이 매우 미약했습니다.

셋째, 이관용 외장하드의 용량 크기와 PAMS의 용량 크기가 차이가 났습니다. 용량 차이의

이유를 기록관 측은 일부 보고 문서의 첨부문서 파일 전체가 누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락 사실을 기록 이관 5년이 지난 시점까지 모르고 있다가 대화록을 찾기 위한 이번 열람 과정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과 여전히 용량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기술 및 관리 부실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넷째, 이지원 시스템을 복구 구동하여 확인하려고 했지만 대통령기록관 직원들의 기술적 한계 및 소요기간 등으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대통령기록관의 인수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부실이 확인되었고 그 결과 회담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민주당 대통령기록물 열람위원들이 대통령기록관 열람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우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지난번 회의처럼 비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을 위한 필수 관계자 이외에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37분 비공개회의개시)

(19시11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최경환** 지금부터 그러면 회의를 공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산회)

○출석 위원(23인)

강은희	김성주	김성찬	김진태
김태흠	김현	문정림	박남춘
박민수	박범계	신동우	심윤조
우윤근	윤상현	윤재욱	은수미
전병헌	전해철	정성호	정진후

조명철 최경환 황진하

○청가 위원(4인)

이완영 이채익 진성준 홍지만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진 정 구

입법심의관 권 영 진